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전자상거래 매출액, 2021년 4조 8천억 예상



물류정책·산업동향

1. DP World, 덴마크 물류기업 인수
2. 네슬레, 세계 원료 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 계획
3. 판알피나(Panalpina), 남아공으로 신선물류 네트워크 확대

명사 스피치

“국내외 경제악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국내 중소물류업체도 한계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포워딩업체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량 부진에 익숙해져 위기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갈수록 물류업체의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합니다.”

민덕규 중원지엘에스 대표이사
(2018. 8. 2. / 코리아쉬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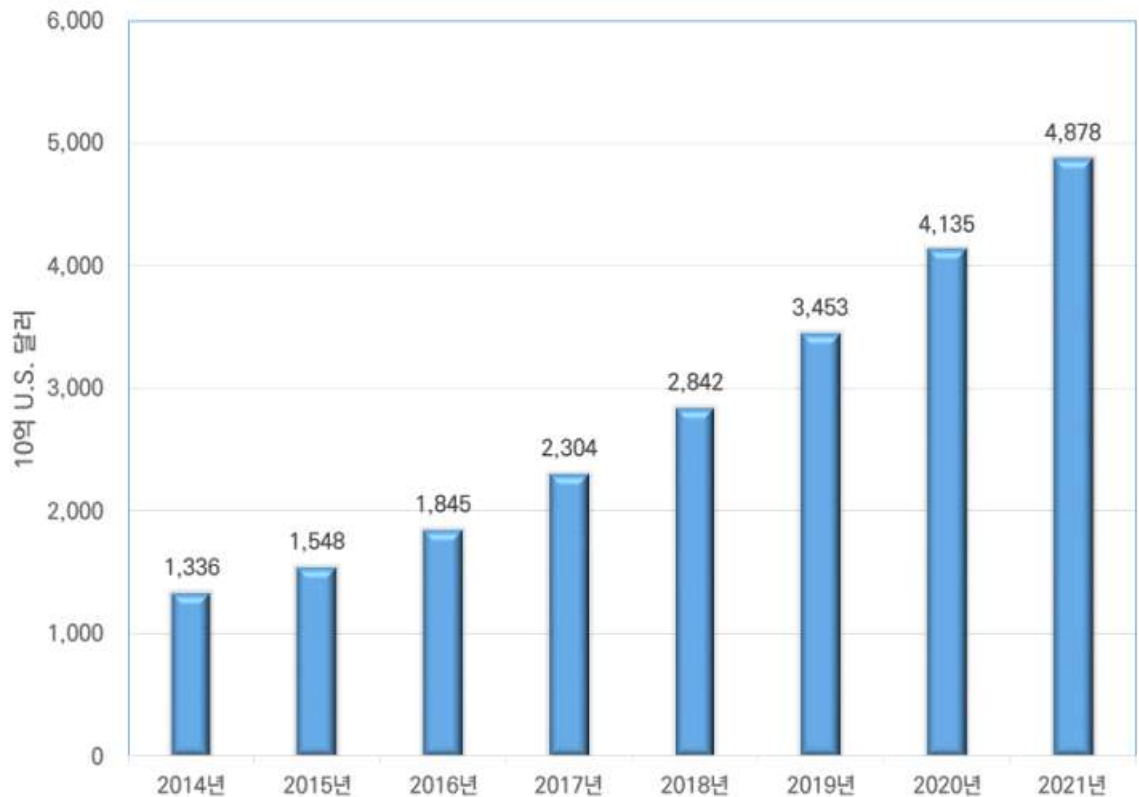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전자상거래 매출액, 2021년 4조 8천억 예상

2014~2021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액 추이



자료 : www.statista.com

- 2017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약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약 2배 이상 증가한 4조 8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 이용 수단으로는 여전히 컴퓨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주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자상거래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폰 보급의 일반화는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DP World, 덴마크 물류기업 인수

- 세계 4위의 글로벌터미널운영사인 DP World가 6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해 덴마크 물류기업 Unifeeder를 인수함
 - 이로서 DP World는 유럽으로의 사업 확장을 꾀함과 동시에 사업 영역을 해운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었음
 - 해당 인수 건은 올 4분기에 마무리 될 예정임에 따라 인수 완료 후인 내년 첫 해의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고객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허브 터미널간 고품질 연결(high-quality connectivity)이 가능해졌으며, 유럽에서 높은 명성을 지닌 Unifeeder는 이러한 측면에서 최고의 물류기업이라 할 수 있음
- DP World의 Sultan bin Sulayem 회장은 Unifeeder의 내부 전문기술을 활용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 DP World는 무역정책 변화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호주 터미널의 성장에 힘입어 올 상반기 컨테이너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77년에 설립된 Unifeeder는 오르후스(Aarhus)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최대 컨테이너 피더 및 단거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심해 컨테이너 허브와 유럽 내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북유럽의 약 100개에 달하는 항만을 연결할 수 있는 단거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Unifeeder는 5억 1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함
- 이번 Unifeeder 인수를 통해 DP World는 글로벌 공급사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화주와 선사에게 더 다양한 자사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DP World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궁극적으로 비효율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세계 무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현 Unifeeder의 운영 기술을 DP World의 기존 비즈니스에 융합시킴으로써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아가 미래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DP World는 글로벌 시장 확장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리에 물류 허브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thenational.ae>, <https://www.reuters.com>, 2018.8.7.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네슬레, 세계 원료 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 계획

- 네슬레(Nestle)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원료 공급망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Gerber 이유식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과일, 채소 등)를 추적할 계획임
 - 네슬레는 전 세계 원료 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 리콜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며, 특히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큰 유아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또한 네슬레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 네슬레와 Gerber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원료 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의 장애 요인은 정보의 이동 및 운영에 있음
 - 각 기업 SAP SE 경영 시스템 상의 정보를 디지털 포털(Digital ledger)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또한 농민, 가공업자 등 다양한 공급망 주체들은 각기 다른 형식으로 페이퍼 및 전자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네슬레는 경쟁사인 Unilever PLC, 월마트(Walmart)를 포함한 9개의 대형 식품 회사 및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Food Trust 플랫폼을 구축함
 - 이는 파트너 및 경쟁사가 하나의 기록 관리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식품 리콜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Yiannas에 따르면 Food Trust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저장되는 수확, 가공, 포장, 선적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품의 추적이 가능함
- 지난 가을, 네슬레는 Food Trust 플랫폼을 활용해 Libby 호박 통조림의 당일 성분 원료 추적에 성공한 경험이 있음
 - 네슬레는 Libby 호박 통조림 사례를 통해 미국 호박 생산자들로부터 당일 성분 식품추적이 가능함을 보임
 - 그러나 Gerber 이유식 제품과 같이 국경 거래가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의 경우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짐
 - 이를 위해 네슬레는 전 세계 사과, 고구마, 호박, 망고 등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
- 국경거래를 통한 다양한 원료의 추적을 위해서는 운송, 트럭킹, 가공, 기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신기술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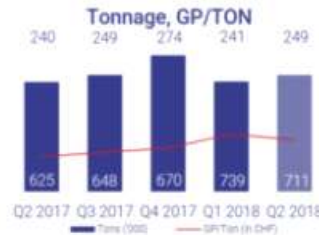
■ 참고자료 : www.wsj.com, 2018.8.1. / www.foodlogistics.com, 2018.8.1.

판알피나(Panalpina), 남아공으로 신선물류 네트워크 확대

판알피나의 항공물류부문 2분기 실적



Air Freight: Sustained margins



	2017			2018	
YoY Growth, %	Q2	Q3	Q4	Q1	Q2
Volume (market, estimated)	10%	10%	11%	5%	4%
Volume (Panalpina)	7%	9%	8%	3%	4%
GP/Ton	10%	11%	10%	19%	14%
Gross Profit	4%	8%	29%	23%	18%

	2017	2018
Gross Profit, EBIT	YTD	YTD
Gross Profit	294.6	354.6
EBIT	39.1	53.4
EBIT/GP (%)	13.3%	15.1%
Volumes (tons '000)	473.1	489.4

자료 : www.aircargonews.net

- 글로벌 포워더이자 물류기업인 판알피나는 과반 이상의 지분으로 신선물류 항공수출 전문기업인 스카이스ervis(Skyservices)를 인수함
 - 2000년 5월 운영을 시작한 스카이스ervis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케이프타운(Cape Town)에도 견고한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음
 - 스카이스ervis는 요하네스버그 O.R.탐보(O.R.Tambo) 국제공항 내에 2,000㎡ 규모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케이프타운 국제공항 인근에도 1,700㎡ 규모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 판알피나는 스카이스ervis 인수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을 기반으로 유럽, 중동, 극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신선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됨
- 판알피나는 스카이스ervis 인수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신선화물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 수출화물의 40%는 신선화물이며 꽃, 아열대 과일, 야채, 딸기류, 고기 및 생선 등이 주요 품목임
 - 신선화물은 주로 영국(런던),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독일(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으로 수출됨
 - 신선화물 외 화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사 에이전트인 비드베스트(Bidvest Panalpina)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판알피나의 항공화물 운송부문의 2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3.7%, 매출총이익은 18% 증가했으며, 글로벌 신선물류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있음



- 지속되던 해상물류부문 적자는 원가관리와 물량회복으로 인해 2분기에 손익분기점까지 회복한 상태인 반면, 항공물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4월 신선물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케냐,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신선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아르헨티나의 신선물류 전문기업인 뉴포트카고 (Newport Cargo)를 인수함

■ 참고자료 : <http://www.panalpina.com>, 2018.7.17., <http://www.aircargonews.net>, 2018.7.17.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